

180mm 기습폭우... 제방 무너지고 하천 범람

보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될까

도로 파손 12곳·산사태 2곳 등
피해액 50억 넘어 선포대상 해당

이달 초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남 보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지 관심이 쏠린다.

9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내린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고 농경지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3시간 동안 180mm의 기습 폭우가 내려 모원저수지 제방이 무너지고 미력천이 범람해 농경지가 잠겼다.

9일 현재 접수된 피해는 도로 파손 17곳, 하천 범람 45건, 저수지 등 수리시설 침수 5건, 산사태 2건 등에 달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치단체의 재정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보성군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지정 가능 피해액 기준은 45억원이다.

아직 정확한 피해 액수는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조사가 진행되면 50억원은 넘길 것으로 보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제정, 금융, 세정 등



집중호우로 제방이 붕괴된 회천면 모원저수지에서 31사단 장병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일 보성군 미력천 피해 복구 현장을 찾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 "피해조사를 거쳐 금액 기준이 되면 선포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합동조사반은 10일부터 보성군에서 조사에 나선다. 보성군은 모원저수지 개량 복구에 30억원, 지방하천인 미력천 보수에 202억원 등 3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지난 1일부터 피해 복구를 위해 공무원과 군인, 경찰, 소방대원 등 2500여명이 투입돼 응급복구에 나섰다.

보성군 관계자는 "농경지 침수 등 피해 신고가 늘어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합동조사반의 조사와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의 조건을 충족하면 선포 건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도 보성군에 긴급 응급 복구비 2억원을 지원했다.

이어군은 행정안전부에 응급복구용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긴급 지원 요청하고, 국토부,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도 원상 복구사업비 확대 지원을 건의했다.

/전남 보성=문병환 기자 m8527188@metroseoul.co.kr

'치사율 30%' 살인진드기 대처법은?

영광소방서 "물리지 않는게 최선"

것이 좋다.

영광소방서(서장 박준익)는 우리나라의 여름 평균 기온이 계속 오르고 있어 살인 진드기감염병 위험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살인 진드기에 물리면 치사율이 30%에 달하는 살인진드기(작은소참진드기)는 영유아와 노인이 특히 조심해야 한다. 특히 진드기에 물릴 경우 증상은 고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구토, 설사, 기침 등이다.

전문가들은 살인 진드기 없애는 약이 개발되지 않아 물리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만약 산이나 풀밭을 다녀왔다면 온몸을 꼼꼼히 살펴보고 진드기에 물린 것을 발견한 직후 빠르게 진드기를 제거하는

진드기를 제거할 때 가장 좋은 도구는 핀셋이다. 핀셋을 사용해 진드기의 몸통이 아닌 피부에 가장 근접해 있는 진드기의 주둥이 부분을 핀셋으로 잡아 진드기를 비틀지 말고 수직 방향으로 진드기를 뽑아낸다.

진드기는 피를 흡혈할 때 사람의 피부를 아주 세게 물고 파고들기 때문에 진드기의 몸을 비틀면서 제거하면 피부에 큰 상처가 나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살인진드기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등에 앉지 말아야 한다.

산이나 공원등을 다녀온 후에는 온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을 했다면 반려견도 씻겨야 하겠다.

/전남 영광=은하수 기자 ehs1203@



이용섭 광주시장, 취임 기념식수

이용섭(가운데) 광주시장이 9일 광주시청 기념식수 동산에서 열린 '제13대 이용섭 광주광역시시장 취임 기념식수'에 참석해 기념식수 후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 자녀를 '미래인재'로 키우는 인문학 강좌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서 진행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제로 마련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양주승)이 여름방학을 맞아 내 자녀를 미래인재로 키우기 위한 체험형 '인문학 과정'을 오는 8월 2일부터 8월 24일까지 3일씩 3차에 걸쳐 총 9일간 진행한다.

이번 과정은 '길 위의 인문학', '4차 산업혁명시대, 독서로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이름으로 마련됐다.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특히 초·중·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이다. 각 차시별 교육에서 청년사관학교·대한드론협회 방문과 독서토론·영어애니메이션 교육방법 및 스마트 워크 실습·드론체험 등에 참여하게 된다.

1차 과정 주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인재의 조건'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추현호 교수가 담당하며 '미래인재의 조건', '독서 패러다임 전환' 등 강연 2번에 체험 과정으로 '중진공 탐방과 독서토론'이 진행된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9일 시작하는 2차 과정은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인재 육성전략'을 주제로 한국고정문화원 나현진 수석코치가 진행한다. 미래인재 육성전략으로 '코칭리더십'과 '문제해결능력'을 배우게 되며 '영어애니메이션 교육 방법'과 '스마트 워크' 실습에 참여하게 된다.

'드론' 교육을 받고 드론체험관도 방문하는 3차시 기간은 22일부터 24일까지다. 대한드론협회 강사들과 함께 '드론 핵심기술'과 '드론이 디자인하는 미래'에

대해 배우며 드론 진로체험관을 방문해 드론을 직접 조정하는 시간도 갖는다.

학생교육문화회관 양주승 관장은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본질과 미래를 바로 알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회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회관 문헌정보과로 문의할 수 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

장성군립도서관 여름방학 어린이 문화강좌 '평평'

전남 장성군립도서관에서 여름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을 위해 풍성한 문화 강좌를 연다.

장성군립도서관은 오는 8월 1일부터 16일까지 장성군립중앙도서관, 삼계도서관, 진원,삼서드림빌 작은도서관 등 4개 도서관에서 초·중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문화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학 강좌는 독서캠프를 비롯한 14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독서능력과 소통을 위한 공감대화 기법 등 다양한 테마로 강좌를 준비하고 참여형 프로그램을 대폭 늘렸다

중앙도서관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에서 놀자(독서캠프) ▲책과 함께하는 공감대화(소통캠프) ▲애들아, 책 숲에서 놀자 ▲역사랑 놀이랑 ▲동화랑 푸드랑 ▲종이랑 클레이 ▲캐릭터 친구 그리기 ▲나도 연예인! 방송댄스 강좌를 운영한다. '나도 연예인 방송댄스'는 어린이에게 춤과 스트레칭을 통해 흥미를



삼계도서관 독서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

유발하고 스트레스를 해소법을 알려주기 위해 특별히 신선했다.

삼계도서관에서는 ▲책 숲 꿈꾸는 공예 ▲책 읽는 꼬마 과학자 ▲로봇과학교실 ▲도형과 기질분석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진원 작은도서관과 삼서드림빌 작은도서관에서도 ▲클레이 공예 강좌가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은 평균 15명 내외로, 선착순 모집중이다. 문화교실 참여는 장성군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남 장성=봉채영 기자

목포시 '2018 하계 대학생 알바' 본격 추진

전남 목포시가 '2018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본격 추진한다.

지난 6일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 교육을 갖고 근무준수 사항과 배치부서 등을 안내했다.

인라 김중식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년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 4년 임기 동안 2만5백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를 만들어가겠다."며 "목포에 머무르면서 원하는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하고, 삶을 보다 활기차게 가꿔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대학생 65명은 9일부터 8월 3일까지 목포시청 각 부서, 사회복지기관, 사회적기업 등 36개 사업장에서 주 5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며, 4주 만근시 90여만원을 지급받는다.

시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진로 선택을 위한 직장 경험을 쌓고, 알토란같은

용돈을 벌 수 있어 대학생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진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는 단순한 사무보조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다양한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목포시는 "사회 경험을 쌓으며 여름방학을 보다 의미있게 보내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겠다."며 "대학생 등 청년을 위한 효과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청년이 행복한 목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김남중 기자 5555knj@

전남 영암·해남 '솔라시도'

공유 수면 토지화 완료

전남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솔라시도'의 삼호지구 공유 수면의 토지화가 완료됨에 따라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해 8월 해남 구성지구가 완료된데 이어서 영암 삼호지구가 완료됨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해당되는 2431만 8000㎡가 등록됐다.

이에 사업 시행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가능해져 투자유치와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호지구의 경우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골프장 45홀 조성 공사에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

향후 골프장과 은퇴자를 위한 주택단지, 승마장, 마리나리조트, 등대전망대, 허브테마단지 등이 조성되면 서남권 최고의 명품 관광레저 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영암=김남중 기자